

광주에서 펼쳐지는 유쾌한 세계 거리극

세계 예술인들이 펼치는 거리극을 광주 거리에서 만난다. 거리극 축제 '2019 ACC 광주프린지인터내셔널'이 19~20일 오후 3시부터 밤 9시까지 5·18민주광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에서 열린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익숙한 일상 공간을 예술무대로 바꾸는 거리에 술작품들을 선보이는 자리다.

올해는 해외 초청작 5편, 국내 초청작 6편 총 11편의 공연으로 시민들을 만난다. '트랑스 엑스프레스' (프랑스)는 공중 퍼포먼스 '인간모빌' (Mobile Homme) 을 선보인다. 장난감 병정 모양의 광대들이 40m 높이의 거대한 크레인에 매달려 타악기를 연주하고 곡예사가 위험천만한 그네타기를 펼치는 작품이다.

'토니 클립톤 서커스' (이탈리아)는 이동형 거리극 '임무명 루즈벨트(Mission Roosevelt)'를 공연한다. 휠체어를 타고 도시를 점령하고자 거리를 다니는 체험으로, 거리가 얼마나 비인간적인지 직접 체험하는 공연이다.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을 하면 작품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석화 그림' (캄보디아)이 선보이는 서커스 공연 '석화 石花'는 캄보디아 '킬링 필드' 시기를 겪은 여자아이가 환상과 악몽에 시달리다 예술을 통해 자신과 지역사회를 치유하는 이야기를 풀어낸다. 또 부모의 동지를 떠나, 성인으로서 현실의 삶 속에 뛰어드는 청년을 그리는 프랑스 극단 '아도크'의 거리극 '비상 비행'을 한국의 젊은 배우들로 재구성한 무대도 마련되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본질을 꿰뚫어보고자 하는 극단 '이미지'

'ACC 광주프린지인터내셔널' 19~20일 5·18민주광장 일대 해외작 5편·국내작 6편



(프랑스)의 이미지 물체극 '사.이.E.N.T.R.E (B.E.T.W.E.E.N)'도 만나볼 수 있다.

국내 초청작들은 다양한 주제와 메시지를 담은 공연으로 관객을 맞는다. 이슬우화에서의 여우와 두루미가 다시 만나 오해를 푸는 과정을 담은 '서울괴담'의 이동형 인형극 '여우와 두루미',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인형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금설복합예술소'의 인형극 '크락션', 사회의 성 차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폭력을 고발하는 '우주마인드프로젝트'의 거리극 '아담스 미스(Adam's Miss)'가 공연된다.

'생각나무'는 갑옷으로 무장한 중세 기사 이야기를 다룬 거리극 '갑옷을 입어도 아프다'를 공연하고, '극단 문'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거리에서 외쳐진 구호들을 문자·언어 예술로 풀어내는 거리극 '구호의 역사: 1945-2015'를, '아이모멘트'는 타인의 시선과 판단에 내맡겨진 이 시대 우리의 몸과 의식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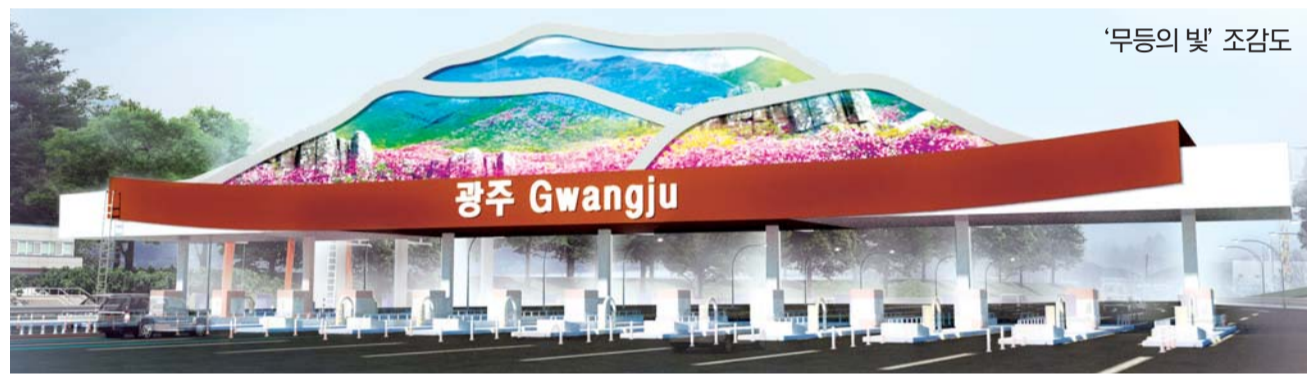
한 이야기를 다룬 신체극 '마네킹'을 선보인다. 일정은 ACC광주프린지인터내셔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1 아도크(프랑스) '비상' 2 트랑스 엑스프레스(프랑스) '인간모빌' 3 우주마인드프로젝트(한국) '아담스 미스(Adam's Miss)'

광주에 들어서면 '무등산의 빛'이 반깁니다

광주톨게이트에 '관문형 폴리' 설치...이이남 협업



광주 톨게이트에 들어서는 관문형 폴리 '무등산의 빛'이 이달 24일 기초 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설치 작업에 들어간다.

광주폴리IV인 '관문형 폴리'는 광주로 진입하는 톨게이트에 설치되는 미디어 아트 작품으로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에 맞춰 내년 4월 준공될 예정이다. 재)광주비엔날레는 광주폴리 마스터플랜을 지난해 10월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광주폴리 IV 추진에 나섰다. 강필서 (주)공간동인건축사사무소 건축사를 광주폴리IV 프로젝트 매니저로 선정 후 광주폴리시민협의회를 통해 관문형 폴리 장소 선정 및 현상공모 방식을 확정했다.

지난 1월 11일이 참여한 현상공모를 통해 당선된 '무등의 빛'은 광주의 김민국 (주)나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와 이이남 미디어아티스트가 협업한 작품이다. 삼향(의향·미향·예향)의 '광주다움'이 빛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은 '무등의 빛'은 16차선 도로인 가로 74m에 높이 8m의 무등산 조형물로 형상화되며 모두 21억원이 투입된다.

서울에서 광주로 진입하는 방면에는 광주의 상징 무등산의 사계와 낮과 밤, 광주의 삼향 등을 담은 미디어아트 콘텐츠가 송출

된다. LED로 제작되는 미디어아트는 무한한 콘텐츠를 시연할 수 있다. 광주에서 서울로 나가는 방면에는 가로, 세로 각각 10cm 규모의 스테인리스픽셀 약 1만6000개가 설치되는 인터랙티브 파사드를 만날 수 있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 흔들리는 스테인리스 픽셀이 연출하는 예술과 자연의 조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낸다. 이밖에 인공지능 데이터로 수집한, 광주의 상징 문구를 미디어아트로 재구성한 콘텐츠도 송출한다.

재단은 이번 폴리 설치를 위해 광주톨게이트 정밀안전진단을 지난 5월 진행했으며, 결과에 따른 기초·기둥, 보수·보강 공사의 필요성을 반영해 보완·추가하는 과정 등을 거쳤다.

한편 2011년 시작된 광주 폴리 프로젝트는 '역사의 복원' 등을 시작으로 4차가 진행되는 동안 광주 전역에 모두 30개가 설치돼 도시 경관을 바꾸고 도시에 문화·예술·건축적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 8월 UN해비타트에서 주관하는 2019 아시아도시경관상 수상에 영예를 안았으며 광주폴리 III는 2017년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 대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 대표적인 건축 프로젝트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

한국학호남진흥원 '청년한국학 혁신인재 양성지원 사업' 25일까지 접수

한국학호남진흥원(이하 진흥원)은 한국학·한문고전번역 분야를 전공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청년한국학 혁신인재 양성지원 사업'을 공모한다. 이번 분야는 전문가 멘토링(자문)과 국역능력 향상을 위해 호남지역 미발굴 자료 및 미번역 고전적 자료(선현문집, 일기 등)를 국역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총 8개팀이며 1팀당 최대 지원금은 1200만원이다. 참여 인원은 1팀당 전문가 멘토를 포함 3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2020년 4월 30일까지 결과물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이며 진흥원 직접 방문, 우편·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에 문의하면 된다. 이종범 한국학호남진흥원장은 "이번 사업이 전통을 성찰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며 "궁극적으로 한국학 진흥과 민족문화 선양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성현 기자 skypark@



'주사위 음악 그리고 피터와 늑대' 광주여성필, 17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대표 김유정)가 어린이와 교사, 학부모를 위한 음악회 '주사위 음악 그리고 피터와 늑대'를 공연한다. 17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이날은 음악체험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주사위 음악'을 선보이고, 이어 임주섭(영남대 음악대학 교수)이 작곡한 현대음악 '고래 이야기'를 연주하고, 프로코피예프의 '피터와 늑대'를 애니메이션 영상과 함께 연주한다.

'주사위 음악'은 모차르트의 '음악의 주사위 놀이'를 모티브로 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주사위를 던져서 즉흥적으로 곡을 만드는 활동이다. 체험은 미리 준비된 악상을 마디별로 나눠 프로 정리해 두고, 주사위를 던져 주사위 눈에 해당하는 마디를 차례대로 붙여 붙여 새로운 악보를 만드는 식으로 진행된다. 광주여성필이 기획한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15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우수공연 프로그램'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피터와 늑대'는 프로코피예프가 어린이를 위해 작곡한 교향곡으로, 프로코피예프가 직접 쓴 동화를 해설자가 구연동화로 선보이며 이야기 사이 사이에 오케스트라 연주를 펼치는 독특한 형식으로 잘 알려졌다.

정현<사진> 지휘자가 지휘봉을 잡고 소프라노 유형민이 해설을 맡는다. 전석 3000원.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한울회' 전

17~23일 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김충곤 작 '숨진장 빛꽃 나들이'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견 작가들이 결성한 한울회(회장 양원철)는 지난 2009년 창립전을 가졌다. 서양화가 노의용 작가가 초대 회장을 맡아 6년간 모임을 이끌었고 이후 장지환·양원철 작가가 회장을 이어받았다. 지난 2009년 대동갤러리에서 '좋은 만남, 좋은 인연'을 주제로 창립전을 연 한울회는 매년 정기전과 함께 부산 '형맥회'와 전시를 진행하는 등 타 지역 단체와 교류전도 꾸준히 열고 있다.

창립 10년을 맞는 한울회 13번째 전시회가 17일부터 오는 23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에서 열린다.

회원들은 자신만의 개성이 담긴 서양화·한국화·수채화 등 다양한 장르의 구상·비구상 작품을 선보인다. 김재일 작가는 기업철벽이 눈에 띄는 산세와 소나무, 운무가 어우러진 가을 설악산 풍경을 수묵담채로 풀어낸 작품을 전시하며 노의용 작가는 다양한 꽃을 든 여성의 모습을 특유의 화려한 색감으로 담아낸 '볼로초 여인'을 선보인다.

또 김필수 작가는 다양한 색과 변화무쌍한 선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추상 작품 '만인보'를, 유태환 작가는 한적한 거리의 풍경을 자신만의 독특한 화면 분할과 색채를 활용해 새로운 조형 세계로 풀어낸 '길'을 전시한다.

그밖에 김은자·김중숙·김충곤·양정숙·양지아·이신자·이영숙·이연실·이정래·이인호·이현숙·정해은·최재창 작가 등 모두 20여명이 참여했다. 전시 오픈식 17일 오후 6시.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